

4/11/21

설교 제목: 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6 장 1-34 절

(1)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2)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5)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6)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9)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10)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11)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12)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13)잇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와 욱과 시므론이요

(14)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15)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 삼명이며

(16)갓의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 (17)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 (18)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십륙명이요
- (19)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 (20)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 (21)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빔과 흠빔과 아룻이니
- (22)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십사명이요
- (23)단의 아들 후심이요
- (24)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 (25)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칠명이라
- (26)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륙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 (27)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명이었더라
- (28)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 (29)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 (30)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 (31)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 (32)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 (33)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 (34)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20 여년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신을 시기 질투해 은 20 에 팔아 넘겼던 그때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거치며 자신들의 과거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고 변화했습니다.

특히 유다는 도적의 누명을 쓰고 종이 되어 애굽에 홀로 남아야 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애굽에 남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복 동생의 대속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시중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20 년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형들은 기겁을 합니다.

20 년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 을 받고 팔아 넘긴 아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서 있다니요?

꿈에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요셉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요셉이 죽이겠다고 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니 자신을 판 일로 인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꼭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아버지가 서로 왕래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식량도 떨어지지 않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가족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 함께 살 것을 청합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형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기근으로부터 형들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 45: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창 45: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더하여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창 45: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가나안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하며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합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로부터 요셉의 말을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선물과 수레를 본 후 그제서야  
야곱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창 45: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야곱은 '족하도다'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졌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고 온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야곱이 왜 출발지인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고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완전히 가나안을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낭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삭은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 자신 또한 가나안을 떠났다가 20 년간 죽도록 고생하고 겨우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며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벧엘 들판에서 돌로 벼개를 삼고 하룻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며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다니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고 야곱의 자손 12 명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야 했는데 그 일을 위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우산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우산 아래 보호를 받으며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일정한 수가 차면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 가족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70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0 년 후 약 200 만명이 되어 출애굽했습니다.

야곱의 자손 70 명이 400 여년 동안 그곳에서 번성하여 200 만명이 된 것입니다.

(26)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륙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27)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명이었더라

(민 1:45)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민 1:46)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명이었더라

출애굽하고 일년 후 계수했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가 603,550 명이었으니 레위 지파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를 포함하면 200 만명쯤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 55: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 55:9)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지켜야 했고 야곱의 때는 떠나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의  
고집과 한계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뜻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